

# ‘무주반딧불축제’ 대상 수상

### 대한민국 상품대상 시상식 축제부문서... 환경축제로서의 가치 인정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 29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에서 개최된 2021년도 대한민국 상품대상 시상식에서 축제부문 대상 수상했다.

대한민국 상품대상 시상식은 (사)한국상품학회가 우수한 상품을 발굴·시상하고 산학 협력의 차원에서 시상 상품의 개발과 마케팅 사례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해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목적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리에는 배일현 한국상품학회 회장과 황인홍 무주군수, 진용훈 무주반딧불축제 제1위원장 등을 비롯한 수상 기업 및 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환경지표 공존인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환경축제로서 지난 20여 년간 인간과 자연이 공생·공존하며 서로의 가치를 공유·학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체험축제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주제공연과 낙화놀이 등 자연과 생태환경, 지역성을 담아낸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반딧불축제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는 호평을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을, 방문객에게는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축제라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군수는 “24년 간 무주군민이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즐겨온 무주반딧불축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에도 개최를 못하고 아쉬움이 큰 상태지만 ‘자연환경보존’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공유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무주반딧

불축제가 축제로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란다”면서 “20여 년 전 엄마 손 잡고 반딧불축제를 보러왔던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 자신의 아이들과 다시 찾는 축제가 바로 반딧불축제는 자긍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한국상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되며 기업사례 개발 및 학회 특별 세션으로 발표·공유될 예정이다.

한편, 무주반딧불축제는 2018·2019 2년 연속 정부지정 문화관광 대표축제를 거쳐 2020년도에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으며, 23회를 개최해오는 동안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반딧불이 체험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놀이,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돼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준수, 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책에 나섰다.

##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최선

### 무주군, 수상레저업자 대상 안전교육·간담회 실시

여름철이 다가오면 수상레저 마니아들이 무주로 관심을 쏟고 있다. 무주군 금강변의 경우 래프팅 공간이 있어 자연경관을 테마로 한 래프팅 마니아들이 즐겨 찾고 있다.

급류가 없어 물결이 잔잔하고 주변의 수려한 산세 환경도 갖고 있어 래프팅 하기가 매우 적합하다는 평이다.

금강변은 부남 풀안리~무주읍 잠두리 5km 구간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래프팅 코스로 매년 여름철이면 마니아들로 성황을 이룬다.

이에 군이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준수, 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책에 나섰다

군은 늘어나는 레저 활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면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군은 고객 중심의 ‘맞춤형 현장 안전관리’ 시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도 세웠다.

군은 지난 27일 오전 7개의 수상레저사업장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갖고 성수기 행락철

을 대비한 국민들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상레저 등록·변경등록 안내, 수상레저 불법행위 근절 및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및 안전장비 올바른 사용방법,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수상레저를 위한 안전수칙 안내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정은 “이번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성수기 안전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사업자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수칙 준수를, 국민들은 안전장구 착용 등 관련 법규를 잘 지켜야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은 레저활동 집중시기에 안전관리를 함께 수상레저 활동자 대상으로 안전장구 미착용, 정원초과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日 미야자키현 아야정과 온라인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해외우호도시인 일본 미야자키현 아야정과 의도한 유대감 유지를 위해 영상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만남의 장을 가졌다.

지난 28일 군수실에서 전춘성 군수와 모니타 마나부 아야정장을 비롯한 교류 관계자들이 참석해 온라인을 통한 회의를 갖고, 두 도시가 그동안 탄탄히 다져온 우호 관계를 확인하며 상생 발전 모색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국제 흐름에 대

응하고 코로나19 등 국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역 경계를 넘는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의 중요함을 재확인하며 문화,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진안군과 아야정은 2009년 첫 인연을 맺어 민간교류를 시작하고 2011년에는 정식으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군민의 날’ 개최 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청소년 탁구 교류를 추진하는 등 민간분야에서도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야외활동·농작업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 장수농기센터, 예방수칙 준수 당부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는 영농시기를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다.

센터는 올해 타 지역에서 참진드기로 인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마을단위 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야외 농작업 활동이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방 및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명률이 20%에 달해 쯤쯤가부시증과 달리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 고통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는 농경지, 밭밭, 논로, 개울, 임야·농경지 경계 등 곳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야외활동시 매개질환 감염에 노출되기 쉽고, 감염될 경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고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적절한 치료없이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특히 센터는 코로나19와 구분도 어렵기 때문에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작업 시 작업복, 목수건, 토시, 목이 긴 작업화를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농작업이 끝나면 작업복 세탁 및 몸을 씻은 후 진드기에 물린 흔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장은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2~3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복귀 후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며 “야외활동 후 고열 및 위장 장애 증상이 보일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력을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진안군은 지난 28일 국가하천인 금강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운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체사업비 3억3,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금강 배수문 2개소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관리자가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배수문을 자동으로 원격제어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배수문

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홍수 발생시 수위차이에 따라 자동으로 수문 개폐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국가하천 수문 개폐를 용담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마을 이장들의 경험에 의존해 이뤄졌으며 수동으로 조작해 전문성 부족과 개폐시기에 따라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발생해 왔다.

군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위와 하천상황을 파악하고

수문을 원격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게 돼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흥기 안전재난과장은 “우기 전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로컬JOB센터, 회계정보처리 자격증 수료식

장수군로컬JOB센터(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는 2021년 회계정보처리(FAT) 2급 자격증 취득교육을 마치고 지난 28일 한국농업연수원 전산실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본 교육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개설된 교육과정으로 구직자의 회계·사무능력분야 취업능력 강화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과정은 지난 4월 23일 개강하여 이달 28일까지 총 52시간의 실무중심 강의와 전산을 활용한 실기수업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수료생 전원이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회계정보처리(FAT) 2급 자격증 취득시험에 도전한다.

장영수 군수는 “회계정보처리 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수군 로컬JOB센터를 통해 장수군민들이 원하고,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개설·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무주군은 관내 6개 읍면 총 15만3,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1. 1. 1. 기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이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무주군이 감정평가사와 함께 가격균형,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